

전남교육청 어린이집 누리예산도 편성키로

어린이집 5개월분·유치원 8개월분 우선 편성 검토

조만간 도의회에 제출...광주교육청은 “고려 안해”

전남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타 지역과 다른 농·어촌 교육 현실을 감안한 조치지만 광주시교육청 등 입장과 사뭇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교육청은 11일 교육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 요구와 관련,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예초 전남도교육청은 올 예산안(3조 1527억원)을 편성하면서 1433억원의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예산(482억)만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당시 재정 행편을 들어 어린이집 예산(951억)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교육청의 추경 편성 방침에는 “다른 도시 지역과 달리, 전남의 경우 유치원·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면 대안 시설이 없어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장만채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같은 점을 감안, 조만간 도의회에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등을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키로 했다.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가 삭감해 유보금으로 구분해놓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2억과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편성해놓은 목적예비비 3000억원의 전남도교육청 몫(171억)을 합한 653억 규모에서 편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전체 예산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위해 5개월 분인 395억원을, 유치원 예산으로 8개월분을 우선 편성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전남도의회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김탁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일단,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등의 불이라도 끄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추경 예산안 제출시 처리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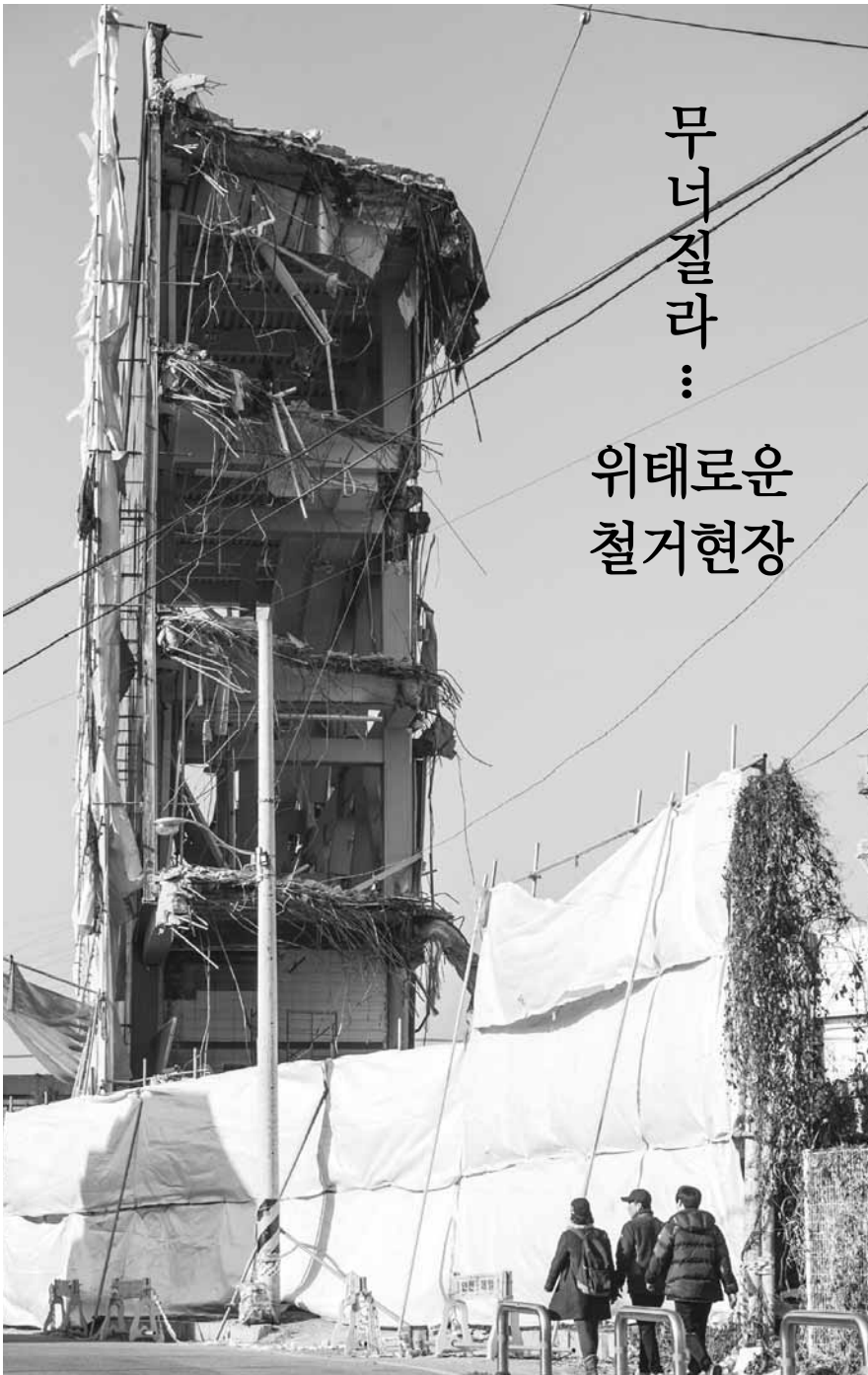
전남도교육청은 그러나 누리과정 편성 재원이 충분하다는 교육부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교육부는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670억원)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을 우려해 올해 예산 3000억원을 삭감한 상태로 초·중·고 학교 예산에 투입할 돈이 누리과정에 쓸 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시의회 재의 결과 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안 제출 여부를 거론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안을 제출하더라도 어린이집 예산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시교육청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부의 예산분석 결과를 조목 조목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시교육청은 인건비(53억) 과다 편성의 경우 이미 시의회에서 85억원이 삭감된 만큼 기용 재원으로 볼 수 없고 시설비(140억) 과다 편성도 지난해 추경안에 편성된 만큼 과다 편성이라는 정부 논리 자체가 모순이라고 맞받았다.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액 및 미전입액(257억)도 광주시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언제 줄지, 얼마나 줄지 전혀 정해진 바 없는 만큼 임의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신애)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11일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무너질라... 위태로운 철거현장

광주시 북구 유동의 옛 나산클래프 건물이 철거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건물 한쪽 외벽만 남아 위태롭게 서 있다. 건물이 수일째 이 상태로 남아 있어 이 곳을 오가는 이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음식 먹고 배탈 났다” 전화 협박 식당 200여곳서 3100만원 갈취

순천경찰, 사기행각 30대 구속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은 음식이 탈이나 치료를 받으십시오. 전화로 항의 했더니 급세 치료비를 보내오기에...”

온종일 도박 자금 마련에 열을 올리던 손모(34)씨의 머릿속에 기발한 묘수가 떠오른 것은 지난해 4월경. ‘식당 한 군데서 오면 10만원, 아니 위자료까지 포함해 50만원만 잡아도 100군데면 5000만원?’ 이날도 손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탈탈 털렸지만 도박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자 입가에 비스무리 웃음이 피어났다.

손씨가 경험으로 깨달은 바대로 전국의 식당 주인들을 쉽게 속였다. ‘당신네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아서 계좌로 치료비를 보내라’는 전화 통화가 끝나기 무섭게 속속 입금이었다. 더러 의심하는 식당 주인들도 있었지만 가까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탈탈 털렸던 영수증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면 그만이었다. 특히 일식집, 횡집이 잘 속아 넘어갔다.

식당 주인이 머뭇거릴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식당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띄우겠다”고 겁을 주면, 곧장 “알았다”며 치료비를 보내왔다.

전화를 받은 식당 주인이 방만한 일시를 묻거나 치료받은 병원 이름을 불러달라고 꼬치꼬치 캐물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식당 이름을 착각했다는 방법으로 얼버무리며 빠져나갔다.

이런 수법으로 손씨가 최근 8개월간 전국의 식당에 전화를 걸어 가로챈 금액만 무려 3100만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손씨의 전화를 받은 음식점 700여 곳 중 200여 곳이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입금한 것이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그의 범행은 지난달 초 순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45)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들들미었다. 손씨에게 전화를 받고 치료비를 입금한 A씨가 인근 식당 주인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의심의 한 것이다.

추적에 나선 순천경찰은 지난 5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던 손씨를 붙잡아 사기 혐의를 구속했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원랜드에서 한 3억원을 잃었다. 생활비도 없고 도박 자금도 없고 하던 차에 과거 경험에서 방법을 떠올렸는데, 이렇게 많이 속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사골국 끓이다...새벽 화재 주민 대피소동

11일 새벽 2시30분경 광주시 남구 진월동 S아파트 이모(여·84)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 잠들어있던 주민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피 과정에서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경상으로 알려졌다. 불길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5분 만에 잡혔으나 8층에 자리한 이씨의 집(79㎡)은 모두 탔고, 위층 아파트 3채도 외부가 그을리면서 소방서 추산 2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리면서 즉각 대피 안내와 소방관 출동이 이뤄져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씨의 아파트처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과 대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대형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은 11층 이상의 경우 전체 층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05년 법개정에 따라 강화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16층 이상 건축물에만 해당했다. 이번엔 화재가 난 S아파트는 15층이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불은 혼자 사는 이씨가 사골 국을 끓이려고 전날 오후 6시에 가스레인지로 켜둔 채 잠들면서 과열로 시작했다. 다행히 잠들었던 이씨가 수상한 김새를 눈치채고 일어나 경비실에 화재 사실을 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4살 어린 여친 집에서 명품시계 훔친 뒤 ‘오리발’

○...무려 14살이나 어린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그의 주의를 면데로 돌린 뒤 고가의 명품 시계를 몰래 챙겨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들렸다.

를 챙겨 나온 뒤 최근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것.

○...김씨는 이씨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전당포에 맡겨 둔 시계를 되찾아 돌려줬는데, 경찰 조사에서 그는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어서 잠시 가져간 것뿐이다. 여자친구가 경찰서에 신고할 줄은 정말 몰랐다”며 때늦은 자백.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수 여종업원 사망’ 업주 구속...부실수사 논란은 여전

폭행치사 인과관계 규명 못해

폭행·성매매 알선혐의만 적용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 사건 발생 50여일만에 해당 유흥주점 업주가 구속됐다. 하지만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폭행 치사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한 채 폭행과 성매매 알선 혐의만 적용, 부실수사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여종업원을 상습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는 업

주 박모(여·42)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상습 폭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두 차례나 보강수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원했던 광주 모 대학병원 담당사 등을 추가로 조사했으나 현재로서는 폭

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 폭행치사 혐의를 배제하고 다른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0일 새벽 0시42분께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A(여·34)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폭행 후 뇌사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0일 숨졌다.

박씨는 또 남편과 함께 A씨 등 여종업원 1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타 업소 매출로 가장해 신용카드를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가정불화 고민 소방관 자살

목포경찰청은 지난 10일 오후 4시15분경 목포시 모 119안전센터 2층 창고에서 소방관 A(34)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료들은 이날 오후 “남편과 통화가 되지 않으니 찾아봐 달라”는 A씨 아내의 전화를 받고 숨져 있는 A씨를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아내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미안하다. 잘 살아라”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아내가 최근 자주 다툰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매입,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NPL대출 전국 특수 물건 90%한도 6.5%~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중도상환 無

화순RPC공장채권 매각

토지 2070평 건물 449평 기계기구일체 7억상당

채권최고액 11억4천만원 전액 배당금 확보 됨.

채권매각가 9억원 문의 담당자 : 010-4557-3034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